

제목: "개혁자의 삶"

말씀: 누가복음 18장 9-14절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부패한 교회를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날이 505년전 10월 31일입니다. 그날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순교 했지만 1917년을 중심으로 개혁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속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개혁자는 누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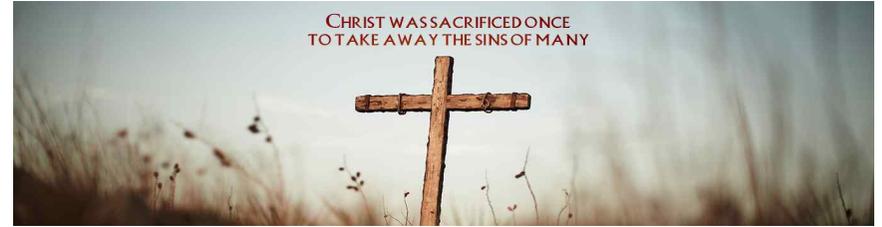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1. 하나님의 _____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2. 예수가 나의 삶에 _____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3.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_____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혁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종교 개혁 주일예배 Reformation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18장 9-14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18: 9-14 신약 125 페이지 Presider
- 말씀 "개혁자의 삶"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죽음의 할로윈 파티)

어제 한국에서 큰 사고가 났다.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려다가 150여명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부상자도 많은 숫자다. 너무나 놀랐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러한 사고가 날 수 있었을까? 의아했다. 10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한국과 관계도 없는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그렇게들 모여서 난리가 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겠지만 가만히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모였고 밀리고 더 밀려서 그 골목에 들어 간 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파티의 장소가 아니었고 내리막길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기에는 좁은 골목 이었다. 한 명이 넘어지기 시작하니 모두가 넘어졌고 결국에는 아래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응급 대원들이 왔어도 얼마나 뻘뻘하게 서로 끼어 있었는지 사람들을 빼내지 못했다고 하니 후에 듣고도 답답할 뿐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서로 끼어서 꺼낼 수 없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전부 간다고 같이 가다가는 나오지도 못하는 골목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 사고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본다.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가 옳다고 하는 길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길이 영원히 죽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서로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결국에는 그렇게 먼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서 앞에서 죽어 가는데도 그냥 밀고 간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 없는 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실망하고 죽어갔다. 아쉽고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또 다른 영원을 사모한다는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길이라도 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가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은 좁지 않다고 하신다. 그곳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축제하며 예배를 위하여 모이고 하나님을 향한 함성을 울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속상하다. 그러나 그것이 철없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차이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14절)라고 하신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은 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1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종교 개혁주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 합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